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영화동아리 아틀리에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이번에 촬영할 단편영화 '병자(가제)'에 출연하실 배우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놉시스, 등장인물을 읽어보시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놉시스>

수금을 마치고 돌아온 형진과 성규. 명한은 형진을 내보낸 뒤, 성규와 단 둘이 남아 대화를 나눈다. 형진이 평소에 채무자를 많이 다치게 하니, 다음 수금인 성규 삼촌 (이후 정수)는 성규 혼자 다녀오라고 한다. 명한이 자신을 빼놓고 자신보다 아래인 성규와 대화하는 형진은 이후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형진은 그 대화가 정수의 수금 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뒤늦게 정수의 집으로 향하는데...

#### <기획의도>

- 대우받고 싶은대로 행동하라.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위치와 관계에 속하게 된다. 각자의 위치와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다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역시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가끔 자신이 받고싶은 대우와 반대로 타인들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인들을 깔보고 하대하고. 이런 행동들은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다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는 없을까? 관계 속의 태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한다.

#### <캐릭터 설정>

- 명한 33세 남

조직 내에서 중 상위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간부. 젊은 편에 속하지만 사람을 보는 안목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인정받아 같은 계층 간부들 사이에서 젊은 편이다. 홀로 대부업의 절반가량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인재다.

형진의 말단 시절 행동력을 보고 어느정도 밀어주었다. 간부직으로 올라온 이후 바뀐 형진의 태도를 보며 형진에게서 정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형진의 히스테리를 직접적으로 겪는 성규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 식구 1, 2

조직의 말단 인원. 평소 자신들을 잘 챙기는 성규를 좋아하고 잘 따르며 그런 성규와 자신들을 하대하는 형진을 아니꼽게 생각한다.

-----  
모집대상

- 33세/남 역할 (명한)

- 20대/남 역할 (식구1)

- 20대/남 역할 (식구2)

#### 촬영일자

2023.08.14 (월) ~ 2023.08.15 (화) 2회차 예정

#### 촬영장소

경상남도 거창군

페이 (역할의 중요도와 회차별 촬영 시간을 근거로 산정함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명한 역 (1.5회차) : 총 7만원
- 식구 1 (1~2회차) : 총 5만원
- 식구 2 (1~2회차) : 총 5만원

#### 우대사항

촬영지 인근 거주자, 자차 이용 가능자

#### 지원방법

- 모집기간 : ~ 2023.08.05.(토)까지
- 메일주소 : dkxmffldp2022@gmail.com
- 메일제목 : 2023 아틀리에 단편영화 병자 ○○○역 지원
- 메일내용 : 프로필, 연기 영상(자유 혹은 출연) (\*연기영상 첨부 필수입니다.), 현재 거주지, 사투리 사용가능 여부

#### 유의사항

- 연기영상은 필수 사항입니다.
- 작품 시나리오상 사투리 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식사는 제공됩니다.
- 숙소는 필요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진행하는 동아리 영화 촬영이다 보니 많은 페이를 챙겨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위의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